

나는 벌레다

정정엽

오늘 내가 아무도 없는 미리내 야산자락을 걸을 때
저기 지구 어느 편에도 정적이 감도는 빈숲이 있겠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모든 생명들이 내뿜는 깊은 숨이 느껴질 때가 있다
지구의 호흡, 맨살, 숨털, 라인, 빛깔
바라보고 놀아보고 몸이 되어 다른 것이 되어본다
나는 대부분 벌레다.
촉각을 곤두세워 방향을 주시한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조심히 움직인다
더듬어간다 넙둔다 결정한다
치열하게 될 대로 되기

벌레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그럼에도 낯선 존재들
작고 물렁한 것들의 세계
불편하고 불결한 생명덩어리
자연의 비밀, 신비, 위태로움
지구의 한 마을에 살고 있다
벌레가 없으면 인간도 없다

나방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2014년 여름밤
불빛을 향해 유리창에 펼쳐진 나방의 몸들
매일 밤 너를 발견한다
생존전략
나는 너를 모른다

싹

식물의 축수
여리고 강한 것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질감
징그럽고 아름다운 생명의 속살

나물

마을

지구, 우주의 한 마을 (계리 스나이다)

마을은 하나의 지구

하나의 종이 사라지면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인간이 완전히 점유한 공간에는 다른 생명이 살기 어렵다

씨앗

버려지고 뺏겨지고 상한 열매를 줍는다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생명의 잎, 뿌리, 열매

그것과 공존하는 작은 생명체들

모든 것을 간직한 작은 세계

흙: 흑흑, 내 삶의 부스러기

땅: 덮어주고 묻어주고

취: 봄에 취하다

쭈: 쭈뼛 쭈뼛 맛있는 이야기

냉이: 봄의 첫 햇살 더듬기

봄나물: 모두 드리리

쌈: 앗! 애 네들 좀 봐라?

씨앗: 우주의 작은 비밀

열매: 열매가 서 말이어도 따야 먹지

곡식: 땅과 인간의 손이 만난 단단한 땀방울

생명: 물렁과 단단함과 비린내

나방: 유리창에 펼친 밤의 몸

벌레: 낮설고 경이로운 수많은 촉감

연민: 다른 모든 것들의 고단함을 아는 것